

야곱의 송구영신: 벨엘로 올라가자

성경말씀: 창35:1-7

오늘은 2015년 마지막 날,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흘러간다. 송구영신 예배, 참 좋은 시간,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아야 한다. 무조건 보낼 수는 없다. 지난 주일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머리를 써서 생각해야 한다.

왜 우리는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있는가? 킹제임스 성경

교회와 목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성경 잘못, 교리 잘못, 영혼의 자유, 헌금 자유, 신약 교회 이런 결심을 할 때 우리 심정이 어땠는가?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떤가?

처음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 잊었는가, 잊지는 않았지만 진보는 없는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새 해를 맞아야 한다.

야곱

성경의 여러 인물, 가장 인간적인 인물,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둘째, 형은 에서

모태에서부터 둘이 다툼(창25:22-23)

야곱은 둘째로 나오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음(25:26)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 야곱은 집에 거하는 평범한 집사람

그런데 그는 조용하면서도 야망이 있었다. 아버지의 복을 차지하려는

그래서 형이 배고파 하니 빵과 팔죽을 넘겨주고 장자권을 삼(25:34)

히11:9를 보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살았음을 보여 줌.

그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에게서 움을 어렵듯이 깨달음.

이방 땅에서 살면서 많은 재물, 할아버지도 100세에, 아버지도 60세에 아이들. 복에 대한 집착 이삭이 죽을 때가 와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 행세를 하며 복음 차지함 어머니의 이유: 큰 아들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

작은 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고양 뱃단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함

믿음 생활, 결혼 등 큰일에서 부모와 상의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다.

에서가 죽일까봐 무일푼으로 황급히 뱃단아람으로 떠나는 길에서 그는 벨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창 28:10-22)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약속(28:13-15)

야곱의 말(28:16-17)

야곱의 서원(28:20-22), 내가 벨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려운 인생, 믿음 생활하다가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영혼의 자유

“제가 죽도록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하고 이 교회로 왔음

뱃단아람에서의 삶

형을 피해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이 있었다.

애송이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임수의 거물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가 결국 레아를 얻음

그리고 라헬을 얻은 뒤 다시 7년을 죽도록 일함

라반이 보니 야곱이 온 이후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음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유익이 되어야 함.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잡아두려고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며 흥정함(창31:7_

야곱은 집이 그리워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결국 6년을 더 섬기고 처남들의 시기로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 아내가 4, 아이들이 11, 많은 짐승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개입함(창31:24)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함

에서가 400명의 남자와 함께 옴.

야복 강에서 홀로 남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 그를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도 그를 용서함

여기에는 야곱의 진정한 회개: 몸을 일곱 번 구부리며 나아감(33:3), 둘이 얼싸안고 울

야곱의 딸(33:10),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 그렇게 형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

야곱의 약속 불이행

지난 20년간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내, 자식, 재물이 함께 돌아왔다.

그러면 그는 베엘을 기억해야만 한다. 안 그런가?

그런데 그는 베엘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의 세겜의 도시 살렘에 머물며 거기서 제단을 쌓음((33:18-20)

분명히 그는 자기가 서원대로 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서원은 살렘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닌 베엘에 제단을 쌓겠다고 서약하였다.

드디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

약속을 안 지키면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 합당한 데 가서 살고 말하고 일해야 한다.

창34의 디나 사건: 야곱의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

거룩하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굳이 하겠다고 달려들면 주님의 징계가 임한다.

결국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과 그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고 거짓으로 속여 할례를 받게 한

레위와 시므온이 이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다 죽임

야곱의 한탄(창34:30), 온 주변이 다 가나안 사람

베엘로 올라가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과거의 서약을 기억하게 하심(35:1)

야곱의 제안(2): 이방 신 제거,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함

가나안의 방식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과거의 지저분한 것들 다 버려야 한다.

악한 생각, 언행, 불평, 불만,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공치사)

하나님의 도우심(5),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베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7).

이 일 이후로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12아들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고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회상과 결심

우리가 기존 틀, 교회, 형식, 제도를 버리고 떠날 때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하고 있는가?

영혼의 자유가 오히려 방종이 되지 않는가? 성경 읽기, 경전 서적 읽기, 나를 돌아보기, 기도, 성도들

섬기기, 가정생활에 진보가 있는가? 위선과 가식

이방 신을 제거하듯 과거의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가?

이 일들이 있어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그리스도인 No!, 이방 신을 버리고 거룩하게 베엘로 올라가야 한다.

빌3:13-14, 13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풋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런 송구영신이 되기를 원한다. 샬롬